

□ 2021.3.26.(금) 09:07:30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较上日+0 2 本土现有确诊	较上日-23 424 现有确诊 ②	较上日+23 102635 累计确诊	较上日+31 251 无症状感染者	较上日+11 5243 境外输入	较上日+0 4850 累计死亡
-----------------------------	--------------------------------	---------------------------------	--------------------------------	-------------------------------	------------------------------

○ 3월 25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11건, 모두 해외유입 사례(상하이 7건, 광둥 2건, 푸젠 1건, 산시(陕西) 1건)

□ 2021.3.15.(월)~3.25.(목)

○ 中 신규 확진자 11명 증가, 모두 해외유입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25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1명(해외유입 11명), 신규 퇴원 환자가 13명, 사망자가 0명, 의심 환자는 1명(해외유입 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163명(해외유입 161명), 누적 신고 확진자는 9만 147명(해외유입 5243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5348명(해외유입 5082명), 누적 사망자는 4636명(해외유입 0명), 의심 환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당일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무증상 감염자가 31명(해외유입 30명, 장시 1명)으로 집계됐으며 0명은 확진 환자로 진단받았다. 현재 의학관찰 받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는 251명(해외유입 250명)으로 통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428명(퇴원 환자 1만 994명, 사망자 204명 포함),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48명(퇴원 환자 48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1012명(퇴원 환자 971명, 사망자 10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3.26.)

○ 중국, 인권이사회서 백신 공평 분배 호소

지난 23일, 인권이사회 제46회 회의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에콰도르 등 국가가 공동으로 제안한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제때 살 수 있는 백신을 획득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자’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유엔주재 중국 제네바 사무소 대표인 천쑤(陳旭) 대사는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백신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라며, 중국은 줄곧 실질적 행동으로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백신 공동 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에 가입해, 1차로 1000만 회분의 백신을 제공함으로써 백신이 시급한 개도국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백신이 시급한 몇 십 개 개도국에 이미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하고 있으며, 또 유엔 측 요구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군에도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은 ‘백신 민족주의’ 뿐 아니라 백신협력 관련 어떤 정치화 의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해당 결의안은 각국 간 백신의 공평, 보급을 촉진하고,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을 중요시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방역협력, 위기 공동대처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중국은 해당 결의안을 지지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人民网, 2021.3.25.)